

22일 Market Index	
코스피 9114.55 (+62.13)	코스닥 968.40 (+1.81)
금리 (연고채 3년) 3.810 (+0.026)	환율 (원/달러) 1541.05 (+14.05)

metro 경제



SK하이닉스, 삼전 제치고 시총 '왕좌'

25년만에 대장주 교체

#“이제 반도체 대장주는 하이닉스 같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을 얼마나 더 벌일이 지켜볼 일이다”, “장기투자는 하이닉스로 가야 타야 하는 것 아니냐” (22일 반도체 투자자들이 모인 A커뮤니티)

SK하이닉스가 2000년부터 25년 넘게 지켜온 삼성전자를 밀어내고 시가총액(우선주 제외) '왕좌'의 자리에 올랐다. SK하이닉스는 몇 년 전만 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등과 2~5위권 경쟁을 벌여왔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인공지능(AI)발 메모리반도체 수퍼사이클(초호황)이다. 올해 개미(개인투자자) 순매수 1위에 오르며 사랑도 한 몸에 받았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올라선 2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하이닉스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하닉 시총 2080조3782억 반도체 수퍼 사이클 시기 HBM 선도, 투자자 러브콜 삼전 시총 2066조6595억

2080조3782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2066조6595억원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1999년 7월부터 이날까지 25년 7개월 동안 코스피 시총 1위를 지켜왔는데, 이날 장중 SK하이닉스에 대

장주 자리를 내준 셈이다. 다만 삼성전자 우선주(약 180조원)를 포함할 경우 격차는 약 180조원, 삼성전자 대비 SK하이닉스 시총 비중은 91.44% 대다.

올해 초만 해도 삼성전자 시총액은 약 760조원, SK하이닉스는 약 493조원으로 250조원 이상 차이가 났다. 하지만 반도체 '수퍼 사이클'은 SK하이닉스 편이었다. 반도체 투심 확대에 SK하이닉스가 연일 급등한 반면, 삼성전자는 노조 리

스크 등이 부각되며 상대적으로 더딘 상승 흐름을 보였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임금 인상에 따른 삼성 전자 영업이익 감소 영향을 7~12% 수준으로 추산했다. 가장 먼저 등을 돌린 이들은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이달 12조4000억원 어치 판것을 포함해 올해 삼성전자 주식을 64조원 어치 처분했다.

<3면에 계속>
/허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
AI시대 성공적 노후 위한 자산전략

최근 우리 사회는 늘어나는 평균 수명과 삶의 질 향상으로 평생 자산관리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100세 플러스 포럼'의 성공적인 출발을 토대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오는 7월 9일(목요일) 개최합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 및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AI 시대에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상속, 증여 전략, 부동산, 금융자산, 대체투자 및 미래투자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2)
- ◆ 주 제 :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
- ◆ 일 시 : 7월 9일(목)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1시40분~2시)
-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 문 의 :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삼성·인텔 추격전?... 당분간 TSMC 독주 지속

'추격론' 기술격차 축소 아닌 TSMC, N3 공급 부족서 비롯 DTCO 생태계 격차 2년 이상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의 반도체 생산병목 현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일부 AI 반도체 수주를 늘려가는 가운데, 인텔 역시 미국 정부의 자국 반도체 육성 정책을 등에 업고 추격에 나서면서 파운드리 3강' 구도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다만 공정 기술과 수율, 생산능력, 첨단 패키징 경쟁력에서 TSMC의 우위가 여전히 큰만큼 당분간 독주 체제가 흔들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와 인텔의 추격론이 본질적인 기술 격차 축소보다는 TSMC의 첨단 3나노(N3) 공정 공급 부족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공급 부족이 해소되는 2028년까지 경쟁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다. TSMC가 공정 기술과 수율, 생산능력 규모, DTCO(설계-공정 기술 공동 최적화) 생태계 등에서 경쟁사 대비 2년 이상의 격차를 유지하는 만큼 2028~2029년 첨단 노드 시장 점유율도 9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인텔은 추격에 한창이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추론용 AI 칩 '그록(Grok)'과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인 AI5-AI6 생산을 수주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팹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은 지난 18일 열린 글로벌 전략회의에서 파운드리 사업부의 첨단 공정 수율

개선과 테일러 공장 가동 계획, 주요 고객사 수주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도 미국 정부의 자국 반도체 육성 정책에 힘입어 파운드리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을 통해 애플이 미국 내 반도체 설계·생산을 위해 인텔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인텔 협력 가능성도 언급해 온 만큼 미국 정부의 자국 반도체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TSMC가 오

랜 기간 축적한 생산 경험과 높은 수율, 고객 생태계를 감안하면 단기간 내 경쟁 구도가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73%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으며 삼성전자가 7%로 뒤를 이었다.

인텔은 1% 미만의 점유율과 낮은 수율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반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이석희 전 SK하이닉스 사장을 파운드리 부장 수석 부사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첨단 패키징과 시스템 통합, 후공정 기술 개발 역량 강화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고객사들의 움직임이 공급망 다변화 차원의 성격이 강한 만큼, 삼성전자와 인텔이 TSMC와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선단 공정 수율 안정화와 생산 경쟁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



韓 선박 2척 호르무즈 무사 통과

해수부, 입항 예정지 제 3국 해협 안 한국 선박 2척 남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지난 10일 울산항에 도착한 유니버설 워너호. /뉴시스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서너달 정박해 있던 위치인 페르시아만 일대를 벗어나 인도양 쪽으로 향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는 22일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송선박 2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협 통항 관련 정보 제공, 실시간 모니터링 등 안전운항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항 예정지는 국내가 아닌 제 3국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이들 선박에 한국 국적 선원은 탑승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현재까지 선박이 위험구역을 완전히 통과하지 않았다"며 "선원의 안전과 선사의 입장을 고려해, 선박 통항 관련 정보, 선사, 선명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박의 추가 통과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인 한국 국적 선박 수는 24척에서 22척으

로 줄었다. 한국인 선원 수도 고대·하선 등으로 인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국적 선박에 102명, 외국 선박에 33명 등 총 135명이 해협 안쪽인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국적 선박이 해협 봉쇄 이후 빠져나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HMM 소유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유니버설 워너호가 지난달 20일 해협을 통과해 이달 10일 울산항에 입항했다.

이어 이달 11일 SK해운 소속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한척이 추가로 해협을 지났다. 선박의 운송주인 파키스탄 측이 이란 당국과 자체적으로 협의한 결과, 미국-이란 간 종전 합의 발표 전에 해협을 통과할 수 있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靑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 박지영 변호사 임명
▲김 총리 "선거 결과로 국정·당 지지율 동반 하락...당이 노력해야" /사진 뉴시스

▲與 "청와대 2기 참모진 전폭 지원...검찰개혁에 당 역량 쏟을 것"
▲윤상현 "선관위원장 상근직·여야 추천 내부감사위 설치해야" /차현정 기자 hyeon@metro

▲법원, '징역 25년' 박성재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합수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청구... "국힘 당원 집단가입 의혹"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